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에 관한 풍경

공선옥 소설가



©강경필

내가 사는 곳은 시골이다. 이곳으로 오기 전, 시골에 가서 살려면 아무래도 자동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차를 구입했다. 차가 있으면 가까운 도시인 광주까지는 30분, 읍내까지는 10분, 면소재지까지는 5분이 걸린다. 이곳에 이사와 사는 중간에 그만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약간 다쳤지만 나는 무사했다. 그러나 차는 망가졌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결국 차를 폐차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택시도 많고 지하철도 있어서 차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다, 라고 여겼다. 차가 없어진 순간부터 다시 차 살 걱정부터 했다. 그렇게 차를 사야겠다, 차를 사야 할 것이다, 차를 사야 하나?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차 없는 생활에 그럭저럭 적응해가고 있다. 차가 없어졌을 때, 차 없으면 시골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차 없이도 잘 살고 있다. 몸이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마음은 편하다.

차가 있었다면 볼 수 없었을 풍경도 있다. 읍내에서 닷새마다 서는 오일장에 가려면 군내버스를 타야 한

다. 일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이 오일장에는 있다. 시골사람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나온 이름도 갖가지의 콩과 감자 종류들. 나는 감자가 그렇게 다양한 줄 시골장에 가보고야 알았다. 예전에 자주 먹었던 돼지감자는 도시의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으름, 깨금, 다래도 그렇다. 나는 그런 것들을 사러 버스를 타고 오일장에 간다.

승객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특히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장에 내다 팔고 필요한 것을 사야 하기에 버스 안에 보따리들이 가득하다. 할머니들은 차를 탈 때 이렇게 탄다. 일단 보따리를 차에 먼저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지팡이도 올려놓는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 자리가 없으면 차 바닥에 아무렇게나 일단 앉고 본다. 그다음에 호주머니를 뒤진다.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나온다.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서 돈을 차비통에 넣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 차는 꼼짝 않고 서 있다. 승객들 또한 누구도 이런 느린 행동에 뭐라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천천히 하시오, 천천히.

아뿔싸, 이런 느리디 느린 일련의 행동이 끝나고 나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집 뜨락에서 주워온 은행을 팔러 장에 나가는 꼬부랑 할머니가 호주머니 속에 비닐

로 칭칭 동여맨 차비를 꺼내다 그만 동전이 와그르르 차 바닥에 쏟아져버린 것이다. 겨우 출발하나 싶었던 차는 할머니가 동전을 다 줍는 동안 다시 섰다. 할머니가 돈통에 돈을 집어넣고 돌아서다가 다시 한 번 아차차, 차비로 내려고 했던 돈은 손에 쥐고 있고 다른 돈을 집어넣어버렸다고 아고고, 아고고. 할머니가 차비보다 많은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차액만큼 동전이 다시 와그르르 와그르르 차비통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돈을 할머니가 다시 비닐에 넣고 하는 동안에 차는 다시 정차. 그러는 동안 승객들은 또 천천히 하시오, 천천히. 내 차가 있었다면 어찌 그런 풍경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동화 같은, 시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럴 때 나는 차 없이 사는 보람을 느끼고, 차 살 결심은 또 그만큼 멀어진다.

한창 아이를 키울 때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늘 채워져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더구나 아이가 셋이어서 세 아이 식성에 맞는 음식과 음식재료들을 구비해놔야 했다. 그래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것만은 엄마가 챙겨줘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것이 내게 있었던 듯하다. 어느덧 아이들은 커서 차례로 집을 떠났다. 세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아이들이 언제 집에 올지 모른다는 핑계를 명분삼아 자꾸 식재료들을 사고 싶어 했다. 냉장고에 분명히 식재료들이 남아 있는데도 시장에 가면 사고 싶은 식재료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채소전의 싱그러운 부추, 배추, 무, 미나리, 시금치, 파, 당근 등. 어물전의 싱싱한 갈치를 사다가 채소전에서 산 무를 깔고 양념간장 얹어서 갈치조림을 해서 내

놓고 싶은 욕망에 달렸다. 배추, 무, 미나리 버무려서 삼삼한 물김치 담그고 고소한 시금치나물 무치고 남은 채소로 새콤달콤 가오리회는 또 어떨까. 그리고 싶은 기분을 내가 어떻게 억누를 수 있단 말인가. 그것들을 사다 맛있게 조리해서 아이들 먹일 생각만 하면 저절로 신이 났다.

그러나 나는 알아야 했다. 내가 이제 식재료 구매의 유희를 끊을 때가 됐다는 것을. 장 봐온 식재료들을 조리해서 식탁에 놓을 일이 이제 그다지 많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다는 사실을 쓸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그렇게 된 마당에 고적한, 간소한 식탁에 내가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고적과 간소함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고적하다는 말을 싫어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고적을 사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온성할 때가 있으면 조락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소멸의 수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한 이치. 소멸을 향하여 자박자박.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볍고 웬지 남은 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졌다. 그리고 보니, 편리함과 풍요라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뒤에 반드시 오게 되어있는 불편과 소박함을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알겠다. 그 용기를 축하해주고 싶어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이들 먹일 음식이 아닌 나를 위한 요리를 한다. 버스 타고 오일장에서 사온 최소한의 식재료로 딱 접시 한 개에 담을 만큼의 소박한 요리를. 🍽

※ 공선옥 : 1963년 전남 곡성 출생. 1991년 〈창작과 비평〉 통해 데뷔. 〈은주의 영화〉 〈꽃같은 시절〉 〈내가 가장 예뻤을 때〉 〈피어라 수선화〉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등 출간. 신동엽창작상, 만해문학상, 요산문학상 등 수상.

※ 본문의 보라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했습니다.